

국방체제 정립기

(1961~1971)



M16 소총 인수



1960년대는 초반부터 세계질서의 흐름을 무시한 북한군의 4대 군사노선 정책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의 위협 속에서도 내실을 다진 국방체제 정립기로서, 5·16이 일어나 2년간의 군정실시, 제3공화국의 탄생 등 정치·사회 분야의 격변기를 맞았다.

특히 이 기간에는 국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국군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병역법을 개정하고 교육훈련제도와 군인사법 등을 체계화시켰다.

또한, 1964년부터 미국과 월남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 나라는 월남전에 국군을 파병하여 1966년에 1개 군단규모까지 파병하였으며 1973년 3월 철수할 때까지 연인원 31만 3천여 명이 참가해 자유월남을 돕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다.

그러나 1966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는 1967년에 접어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10배에 달했으며, 1968년 1월 21일에 자행된 북한 124군부대의 청와대 침투 사건과 1월 23일의 동해상에서 일어난 미 해군 첩보수집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대에 큰 위기상황을 가져왔다.

이러한 안보위기로 미국의 군사 원조가 증대되고 국내적으로는 합동참모본부에 대간첩본부를 창설하였으며 1968년 4월에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는 등 총력안보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968년 11월 2일 또다시 울진·삼척지구에서 12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약탈과 살인행위를 자행하였으며, 1969년 4월 15일 미 정찰기 EC-121기가 동해에서 격추되는 등 심각한 안보위협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국제정세의 새로운 사태에 직면한 우리 나라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힘겨운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68년 4월 17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박·존슨 정상회담에서 기 합의된 국방각료급의 연례회의를 구체화하여 1968년 5월 27일부터 28일(워싱턴)까지 제1차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였고, 1969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국방각료회담에서는 예비군의 무장화,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M-16 소총 생산문제 등이 합의되어 획기적인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4차 회의부터는 범위가 확대되어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명명하고 한·미 국방장관과 합동참모회의 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가 참석하여 양국의 안보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매년 교대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 회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한 1·21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 직후 60만 현역군만으로는 지상 및 해상을 통해 침투하는 북한의 무장간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향토예비군을 조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년 4월 1일 예비군 창설식을 갖게 되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향토예비군은 거주지 단위로 지역예비군,

직장단위로 직장예비군으로 구분 편성하였고, 편성대상은 예비역 장교 및 제1예비역의 병 그리고 필요시는 제2예비역의 병과지원자로 하였다.

예비군의 무장을 위해 처음에는 취약지구 예비역 중대에 M-1 소총, 카빈 소총, 기관총 등 개인화기를 군에서 대여·지급하였고, 주요 산업시설 직장예비군에게는 경찰구입 무기를 지급하였으며 부족한 무기는 연차적 계획에 따라 무기 지급을 확대해 나갔다. 국군의 월남전 과병을 계기로 우리 군은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1966년에 1개 예비사단의 병력과 장비를 증강시켜 전투사단화하고, 1개 준전투사단을 창설하였으며, 2개 예비사단을 준전투사단화하여 전투력을 보강하는 한편, 도입한 장비로 1964년 4월에 호크 유도탄대대, 1965년 6월에 나이키 허큘리스 유도탄대대, 1966년 7월 호크 유도탄대대를 추가 창설하였고, 2개 기갑여단 및 1개 전차대대와 1개 어네스트 존 대대, 1개 175밀리 포병대대와 5개 8인치 포병대대를 창설하였다. 이와 함께 M-48 전차, 통신차량, 무전기, 곡사포 탄약, 기타 소화기 등이 새로 공급됨으로써 지상전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해상전력 향상을 위해 1965년부터 대간첩작전용 고속정을 건조하기 시작하여 1967년 11월에는 도입한 함정과 건조한 함정 등으로 1개 전단을 창설하였고, 1966년에 고속수송함(APD)과 포함(PG) 등을 도입하였으며, 1967년에는 호위함(FB)과 경비함(PCE) 및 포함(PG) 등 10척을 도입하였다. 1968년에는 호위구축함(DD)을 비롯하여 호위함(FB), 대형 소해함(MSF), 경비함(PCE) 등을 도입함으로써 해군의 전투력을 크게 증강시켰다.

공군은 1개 전투비행단, 1개 전투비행전대, 5개 전투비행대대, 4개 전술공수비행대대 등의 창설과 방공관제부대의 확장 그리고 전술부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한 작전사령부와 항공기 정비 및 보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수사령부를 창설하여 전술공군으로서의 임무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항공기 현대화 계획에 따라 1965년부터 F-5A 전투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71년까지 C-46D, C-54D 및 S-2A 해상초계기와 F-4D 팬텀전폭기를 도입함으로써 열세에 놓여 있는 대북한 항공전력을 상당히 만회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광주기지의 준공에 이어 강릉, 대전기지의 활주로 확장 및 주요 레이더기지의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망의 준공으로 탐색 및 방공관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작전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수도방위사령부 창설(1961. 6. 1. 서울)
1963년 12월 17일 수도경비사령부로 개칭하였다.



① 호크 및 나이키 유도탄부대 창설
한국군 최초의 호크 방공유도탄부대(1964. 4. 1) 및 나이키 유도탄부대(1965. 6. 1)가 창설되었다.



① 제3공수특수여단(1969. 1. 18) 및 제5공수특수여단(1969. 2. 17) 창설



① 육군 제3사관학교 창설(1968. 10. 15)



① 육군 군수사령부 창설(1970. 12. 15)



① 한·미 제1군단 창설(1971.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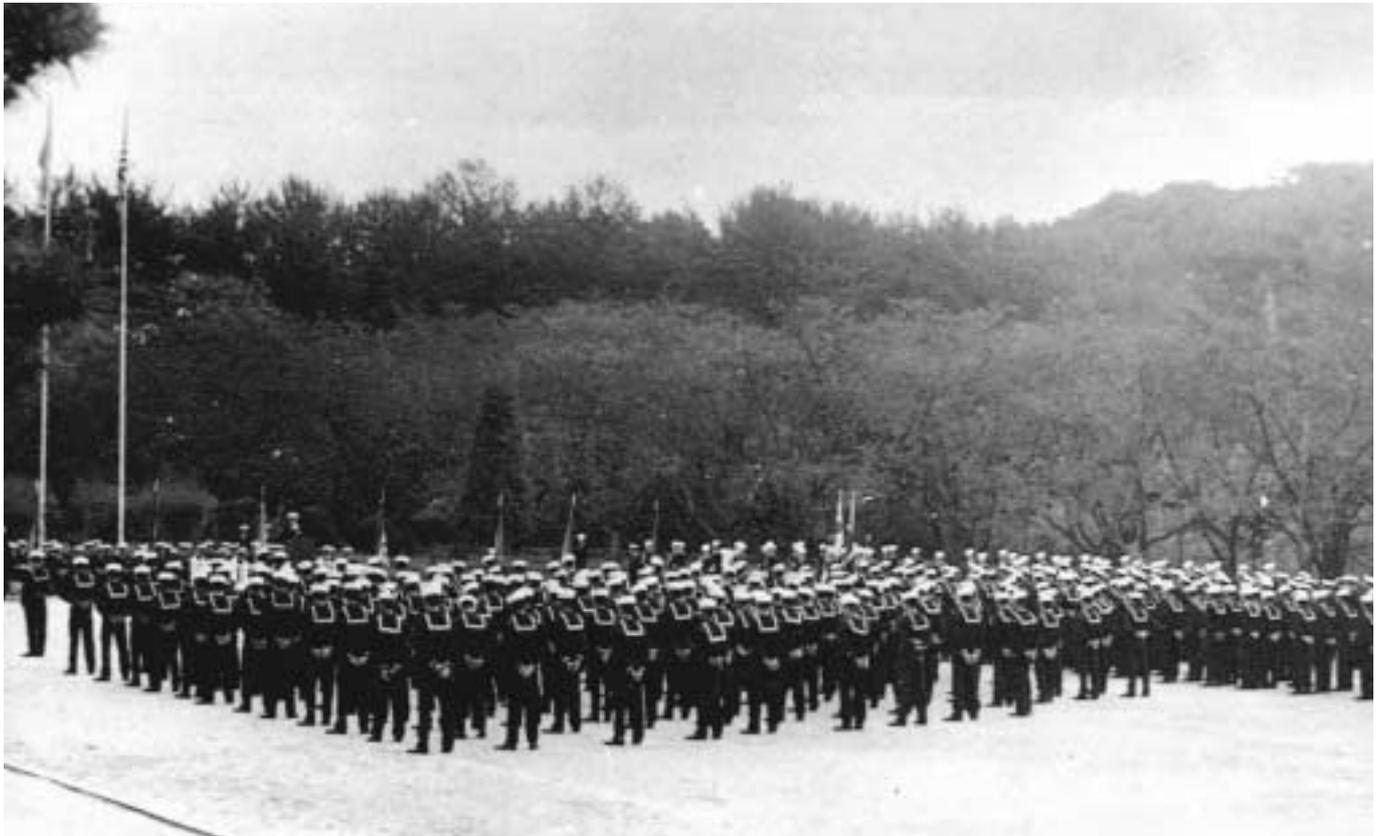
1971년 3월 미 제7사단의 철수를 계기로 동년 7월 1일 미 제1군단의 편성을 조정, 한·미 제1군단을 창설하였다.



① 동해안 경비사령부 창설(1969. 1. 18)



① 특전사령부 창설(1969. 8. 18)



① 한국 함대 제6전단 창설식(1967. 11. 1)



① 인천 특수경비해역사령부 현판식(1971. 7. 1)



① 제주도 통합사령부 창설(1962.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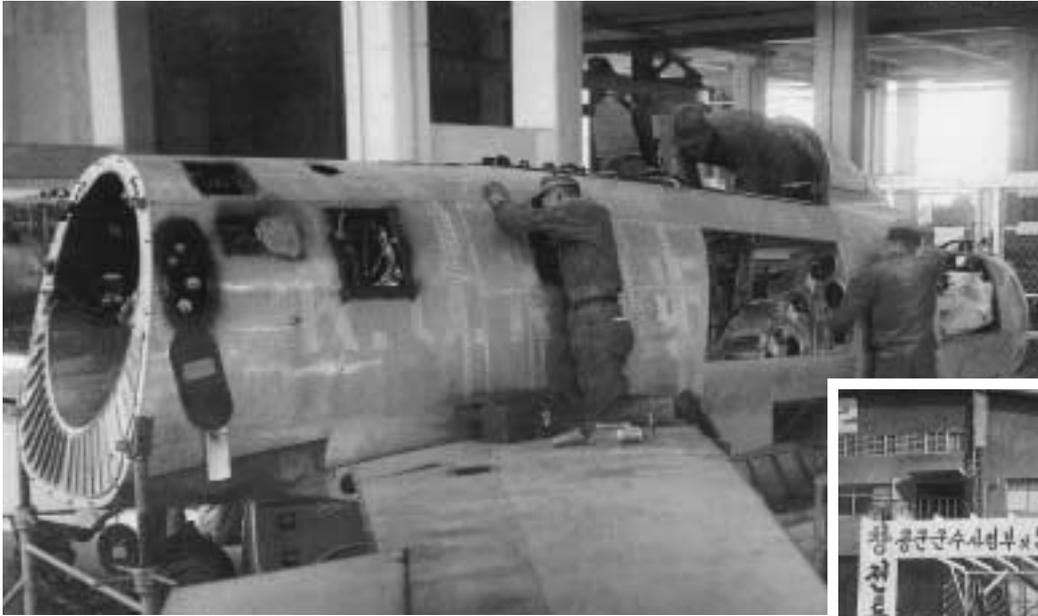
① 공군 작전사령부 창설식(1961. 7. 1)

한국 공군은 1960년 초에 2개 전투비행단(10, 11비행단), 특수임무부대(31전대, 32, 33대대), 전천후 오격비행대대(108, 109대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제공권 획득을 위한 대공 및 방공작전, 후방차단 및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제반 작전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1961년 7월 1일 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① 제30방공관제단 창설(1963. 9. 10)

1955년 미 공군으로부터 레이더 장비를 인수하여 비행관제경보대로 출발, 1963년 방공관제단으로 승격되었다.



① F-86 기체 및 엔진 정비



② 공군 군수사령부 창설(1966. 7. 12)

전 공군기지에 대한 창정비 및 보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공창사령부를 해편하고 군수사령부를 창설하였다.



③ 제3훈련비행단 창단(1968. 5. 10)

제1전투비행단 예하 제16 및 제17비행교육대대와 비행학교를 흡수통합하여 제3훈련비행단을 대구기지에서 창설하였다.

④ T-28 비행교육



학도군사훈련단(ROTC) 설치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제도는 대학생 중 잠재력 있는 우수자를 선발하여 2년간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음,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시켜 일정기간을 복무하게 한 후, 희망에 따라 군에서 활용하거나 사회로 진출시켜 유사시는 동원하여 군예비전력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❶ 학군단 야영훈련 입소

1961년 6월 1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6개 종합대학교에 최초로 학도군사훈련단이 설치되었다.



❷ 학군단 후보생의 로켓포 조준훈련



❸ 학군단의 장교 임관식

향토예비군 창설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랍, 해군 56함 및 EC-121기 피격 등 일련의 북한도발을 계기로 군은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창설, 전국 191개 시·군·구에 250만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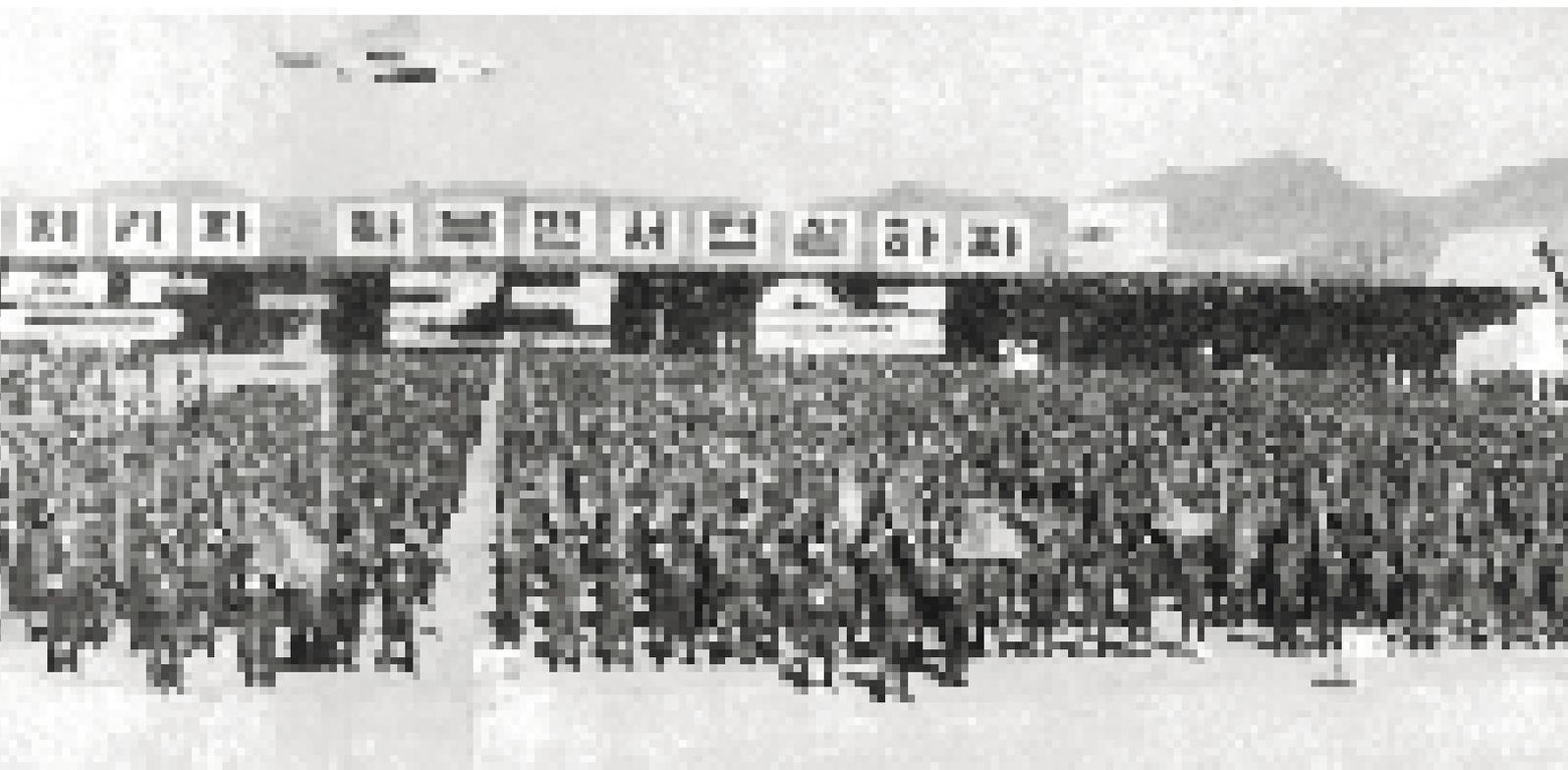
④ 예비군기를 수여하는 박정희 대통령(1968. 4. 1)

⑤ 향토예비군 창설식(1968. 4. 1. 대전공설운동장)





① 예비군 기동대





① M113 장갑차 도입(1965)



② M-48 전차 도입(1964)

③ M-16 소총 인수(1968. 12. 13)





① 90미리 무반동총 생산 배치(1971)



② 175미리 평사포 인수(1971. 1. 16)

③ 105미리 야포 인수(1971)





① 8인치 자주포 인수(1971. 1. 16)

② 지대지 유도무기 「어네스트 존」 도입 및 최초발사(1971. 4)





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나이키(NIKE) 도입(1966)



① OH-23 헬리콥터 인수(1967. 4. 29)



① 국민의 방위성금으로 도입된 UH-1H 헬리콥터(1968)



① 해군의 구축함 시대를 개막한 DD-91 「충무함」(인수 : 1963. 5. 16) ※ DD : Destroyer



① 미국 시애틀에서 인수한 경비함(PCE-1001)(인수 : 1963. 7. 25)



① 구축함(DD-92)의 위용(1968. 7. 19)



① 미국 보스턴에서 인수한 소해함(MSC-526)
(인수 : 1963. 9. 7) ※ MSC : Mine Sweeper Coastal



㉠ 고속수송함(APD-82, 83) 재취역식
(1965. 7. 20)



㉡ 고속수송구축함(PG-85, 86, 87) 재취역식(1967. 11. 11)



㉢ 미국 샌디에고에서 인수한 고속함(PGM-11)
(인수 : 1971. 10. 15)



① 제2차 F-86D 전천후 요격기 인수식(1961. 12. 8)

북한의 IL-28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0년 2월 10일 도입한 전천후 제트요격기로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작전이 가능한 전천후 비행기로 공군 주력 기종의 하나로 활약 후 1971년 퇴역되었다.



① F-5A 전투기 도입(1965. 4. 30)

1인승 전투기로 공군 최초로 초음속전투기 시대를 열었으며, F-4 전폭기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공군의 주력 기종이었다.



① F-4D 팬텀 전폭기 도입(1969. 9. 28)

1·21사태와 북한 공군의 기습공격 능력을 감안하여 1968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69년도에 18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④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망 안테나

통신망 현대화 계획에 의거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망을 설치함으로써 장거리 통신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1968. 4. 26)



④ 사이드와인더 도입

F-86D 전천후 요격기 도입을 계기로 항공기의 화력을 증강시키고자 대공유도탄 사이드와인더(GAR-8)를 1961년 5월 24일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④ 준공된 광주기지 모습

신기지 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1961년 광주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하여 1967년 5월 25일 국제표준형의 전술항공기지를 준공하였다.



① C-54 수송기

1966년 6월 한국군 최초의 해외파병인 월남전 공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수송기로 50여 회의 한·월 공수 작전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1992년 퇴역하기까지 26년간 주력 수송기로 활약하였다.



① 레이더기지 종합준공(1968. 6. 13)



① 한·미 행정협정 조인

휴전협정 조인이후 계속된 한·미행정협정 협상이 13년 만인 1966년 7월 9일 중앙청에서 정식 조인되었다. 주한미군 주둔시 필요한 토지, 시설, 출입국 관리, 통관과 관세, 형사재판권 등 양국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호놀룰루 한 · 미 정상회담

이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국방각료회담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우리의 안 전보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1968. 4. 17)

⑤ 제2차 한 · 미 국방장관 회담(1969. 6. 3~4. 서울)

임종식 국방부장관과 패카드 미 국방차관이 회담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④ 제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1971. 8. 12~13. 서울)

제4차 회의부터 기존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로 개칭되어 안보협력관계를 대외에 과시함은 물론 연합방위태세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정래혁 국방부장관과 레이드 미 국방장관)



❶ 강재구 소령 살신성인비

강재구 소령은 1965년 10월 4일 월남전 참전을 위한 마지막 훈련 중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음으로써 부하들을 구하고 28세의 몸으로 산화하였다.



❷ PX (Post Exchange)

장병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복지 향상책으로 1961년 4월 전군에 PX를 설치하여 각종 생활 필수품을 원가로 판매 운영하였다.



❸ 낙도 홍보활동

1969년 9월 5일 진해군항 제2부두에서 낙도기동홍보단을 창단하여 활동을 개시한 이래 해군에서는 정부 관계기관의 지원을 얻어 매년 일정한 도서를 선정하여 대민사업으로 낙도홍보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